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 11, No. 4, pp.42~51(2007)

輕症 癡呆老人을 위한 閭家服 디자인 硏究[+]

朴惠媛* · 李賢榮
昌原大學校 衣類學科 副敎授*, 昌原大學校 衣類學科 講士

A Study on the Leisure Clothing Design for Elderly with Mild Dementia[+]

Park, Hye-Won* · Lee, Hyun-You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clothing design for mild dementia patients who display positive action in clothing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dementia patients following the symptoms of patients in accordance with the clinical classification to provide the functional assistance for ordinary living as well as emotional stability and aesthetic functions for the dementia elderly.

The method of research is performed for theories through the advanced research and documentary data, and interpreted in functional and aesthetic level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advance survey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ld dementia patients and clothing conduct of elderly with light dementia to select the material, color, decoration and functional design with four pairs for women and two pairs for men. Designs for the total of six have been actually produced by making the map, including the material swatch, color and others.

The questionnaire as the measuring tool is used and the assessment category is made for the adaptability of design on each category. On the six clothes that are produced for the mild dementia patients, the statistics package SPSS Ver 12.0 is used for the data analysis on questions 8~10 for the frequency analysis.

In overall, the leisure clothing for mild dementia patients developed from this research are generally satisfied, and overall type, material, color, detail and arrangement are generally evaluated highly, and have the assessment of normal or better in the color size and type.

[+] 본 연구는 2005년도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사업(R01-2005-000-10143-0)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Park, Hye-Won, Tel.+82-55-279-7474, Fax.+82-55-279-7470
E-mail: hwpark@changwon.ac.kr

Key Words : fashion therapy(의상치료), dementia patients(치매환자), leisure clothing for mild dementia patients(경증치매환자여가복)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9.1%에 해당하는 438만 명으로 평균 수명 증가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UN이 지정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이행 중이며, 2018년 고령화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사회 진입에 11년, 초고령사회는 19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을 능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고령화사회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 중에 노인성질환, 특히, 치매노인수의 증가는 노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하지만 치매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치료대책을 세운다면 증상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질병경과를 늦출 수 있는 적절한 중재가 요구된다[3].

치매는 정도에 따라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없는 경증치매로부터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을 모두 잃게되는 중증치매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매우 크다. 경증의 치매는 사회생활이나 직업상의 능력이 비록 상실되더라도 아직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비교적 온전한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정서적 치료나 치매관련 프로그램의 활용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증세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증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치매환자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4]에 따르면 치매정도가 심할수록 일상생활동작의 자립도가 낮았으며, 경증치매환자의 경우 외모와 옷에 대한 관심, 색상이나 무늬에 대한 선호, 깨끗한 옷을 요구하는 등의 긍정적인 의복행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하지만 임상적 분류에 따른 의복행동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치매노인 환자복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며 체계적인 의복이나 용품들이 대중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치매환자의 치료는 감정표현과 선호하던 대상이나 즐거움에 대한 회상을 유도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인지적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의상치료(fashion therapy)의 개념으로 의복을 중심으로 인체에 부가되는 모든 요소들을 사용하여 외모를 개선시킴으로써 자기존중 향상과 부정적 정서를 감소 시켜 치료 및 사회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5]. 이는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제2의 피부로 함께하는 의복이 가지는 심리적 작용의 측면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사회 환경적 치료요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교적 초기 치매노인들을 위해 여가시간에 적합한 의복을 개발하여 치매노인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능적 분야 뿐 아니라 치매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미적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여가복을 디자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와 노인인구의 증가에 발맞추어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세분화된 의복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며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복에 있어서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여가복 디자인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와 문헌자료를 통해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경증치매노인의 의복행동과 치매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선행조사의 결과를 기능적·심미적 차원으로 해석하여 형태, 소재 및 색상, 장식과 기능성을 강조한 여성용 4벌, 남성용 2벌의 경증치매 노인복을 디자인하였다. 총 6벌의 디자인은 도식화와 소재 스와치, 컬러 등의 맵을 만들고 실제 제작하였다. 기획단계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요양원의 간병사 2명 수간호사 2명, 신경과 의사 1명과 면담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제작 후에는 패션디자인 전공자(교수 및 대학원생) 11명을 대상으로 심미성과 기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본 연구 범위는 주로 실내 생활과 주거지 가까운 곳에서 일반생활을 하면서 놀이치료나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착용하는 여가복의 개념을 중심으로 디자인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경증치매환자의 특성과 선행연구

치매는 영어로 dementia 라고 하는데 이는 라틴어의 dementatus에서 나온 말로서 de의 '제거한다'와 mens의 '정신' 그리고 tia의 '질병'이란 뜻이 결합된 단어이다. 문자 그대로 정신이 제거된 질병이다[6]. 치매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치매가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뇌혈관성 치매이다.

원인질환으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50%, 뇌졸중후에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는 10~20%,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치매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15%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뇌혈관성 치매는 뇌출혈, 뇌경색 등에 의해 야기되는 뇌졸중으로 인하여 뇌 조직의 일부분에 혈액이 통하지 않게 됨으로써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나타나게 된다[7].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아직까지 분명하게 모르고 완전한 치료법이 없다.

치매는 임상적 분류<표 1>에 따라 경증, 중등증 및 중증으로 구분된다. 경증 치매는 아직은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이며, 중등증 치매는 혼자의 독립적인 생활은 어렵지만 타인의 도움이 제공되면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되고 가정에서 부분적인 감독과 간호로 생활할 수 있는 상태이다. 중증 치매는 일상생활 능력이 심하게 감퇴되어 지속적인 간호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최소한의 개인적인 위생도 유지할 수 없으며 대개는 언어구사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거나 말을 하지 않는 함구적인 상태를 보인다[9].

이러한 임상적 분류에 따른 치매노인의 수를 추정하기 위한 우리나라 치매환자들의 정도별 유병률은 <표 2>에서 보듯이 조사자에 따라 다르나 그것을 평균하여 보면 경증 치매환자는 59.2%, 중등증 치매환자는 27.2%, 중증환자는 13.6%로 나타난다. 증상이 경미한 경증치매노인이나 중등증 치매환자는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치매환자의 약 87%가 여기에 해당된다[10]. 이렇게 경증치매 노인은 비교적 독립적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적절한 개인위생을 유지하며 비교적 온전한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치매의 초기 증세는 의심, 오해 등의 경미한 피해망상과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거짓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세는 꾸준한 설명과 만류에 의해 크게 호전될 수 있으므로 치매 가족 교육을 포함한 치매 관련 프로그램으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많은 치매 환자의 증세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11] 그러므로 지역사회단체 및 치매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이나 신체활동 향상과 여가체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건강한 노인들과 달리 각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단기 재활 프로그램이나 일시적인 시설입소 등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일상복과는 달리

<표 1> 치매정도의 분류

치매의 정도	기 준
경증(mild)	사회생활이나 직업상의 능력이 비록 상실되더라도 옷 입기, 배변관리 외 아직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적절한 개인위생을 유지하며, 비교적 온전한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등증(moderate)	독립적인 생활이 매우 위험하고 타인에 의한 부분적인 감독과 간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중증(severe)	일상생활의 능력이 심하게 감퇴되어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상태로 최소한 개인위생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대개는 지리멸렬한 언어구사나 함구적인 상태이다.

<표 2> 치매 정도별 유병률[12]

(단위 : %)

전 체		정 도 별 구 성 비		
		경 증	중 등 증	중 증
박종환 등	100.0	53.8	30.8	15.4
서울대학교	100.0	64.7	23.6	11.7
평균	100.0	59.2	27.2	13.6

편리함을 부여하고 따뜻하고 안정감있는 기능성과 함께 의복과 아름다움에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의복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치매노인의 의복에 관련한 최근 선행연구[13]에서 제시된 치매환자복 착의 실태 조사 결과 임상적 분류에 따른 치매 환자복의 경우 대부분 상하 분리형 치매환자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사이즈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남녀 구별 없이 대, 중, 소로 되어있어 환자들에게 적합한 치수의 환자복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치매환자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14]에서 치매환자의 의복행동은 치매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외모와 옷에 관심을 표현 한다', '좋아하는 색상이나 무늬가 있다', '깨끗한 옷을 요구 한다' 는 등의 항목은 다른 행동에 비해 긍정적인 의복행동으로 경증치매집단이 중증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복의 실태와 문제점 및 디자인 선호도 분석[15]에서는 치매환자복의 전반적 디자인 선호도 분석결과 약 90%가 상하분리형을 선호하였고 사이즈 및 성별의 구분이 없으며, 기능적이고 쾌적한 치매환자복을 위한 성별의 차이, 신체적인 차이, 사이즈 체계의 개발이 요구 되고 있다고 하였다. 국내 치매환자복의 디자인 현황조사 분석[16]에서는 치매환자복 대부분이 일반병원 환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자복을 착용하였고, 디자인과 색상 및 문양 또한 노인 치매환자들에게 적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국내 치매노인의 의복실태는 매우 열악한 편이어서 기능적이고 쾌적한 의복을 제공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디자인의 요구와 기능성에 따른 의복 개발이 요구 되고 있다. 또한 치매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환자중심의 의복의 디자인이 제시되어 편리와 정서적 만족을 줄 수 있는 디자인 의복의 개발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2. 여가복 개발의 필요성

치매환자의 치료법으로는 크게 의학적 치료와 사회 환경적 치료로 분류할 수 있다. 신체활동과 인지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증 치매노인의 운동능력과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고 위축된 여가 활동을 촉진시켜서 자신에게 적합한 여가 활동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치매노인들이 다양한 정서적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 단체 여가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정서적 치료에는 음악, 미술, 원예치료나 회상 요법 등을 이용한 정서적 치료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예로 잔존기술 익히기, 종이접기를 통해 색감각 익히기, 민요를 반복학습함으로써 기억력 감퇴를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활용은 경증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을 증진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결과로 나타나며,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치매노인에게서 정서적 위축과 표정이 살아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좋은 척도일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적당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자극을 통해 의학적 치료 이외의 정서적 치료와 삶의 향상이 있을 수 있다[17].

하지만 현재 치매노인을 위한 의복은 노인중심의 의복이 아니라 간병인이나 간호사 등의 관리 차원이 우선되어 환자의 병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중증환자들과 같은 환자복을 입힘으로써 경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미적 요구가 만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편리와 정서적 만족을 주는 치매노인의 다양한 의복의 개발이 필요하다. 치매노인의 의복입기 참여로 자신감을 줄 수 있고, 심미적인 디자인의 의복을 입음으로 과거의 회상이나 즐거움을 유도함으로써 자신에게 존중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복의 색채나, 의복 디자인을 통한 의상치료는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사회 환경적 치료의 접근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매환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로서의 상징적 기능성을 첨가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여가복 개발에 기능성과 관리성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디자인개발이 필요하다.

III. 디자인 개발 및 평가

1. 디자인 기획

실내생활과 주거지 가까운 곳에서 일반생활을 하면서 놀이치료나 재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동안 착용하는 편안한 여가복을 디자인기획 하였다. 시즌별로 형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하 분리형으로 디자인을 하였다. 요양원이나 자택등과 같이 상의와 여성용 스커트, 여성용 바지, 남성용 바지, 하의, 조끼로 여성용 4벌, 남성용 2벌로 총 6벌을 디자인 기획하였다. 이는 치매병원의 수간호사 2명과 간병사 2명, 담당의사 1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의 의복의 문제점이나 디자인의 개선사항 등을 들었으며, 치매의복에 있어 평소 개선되어야 할 점과 의복 착탈 등과 관련하여 힘든 점을 자유롭게 말하도록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디자인 기획에 참고 하였다.

2. 디자인 특성

1) 심미성

실버세대의 감성적·심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치매환자라는 이미지를 드러내지 않으며, 실버세대의 감성적인, 심리적인 특성에 맞추어 실제 연령보다 젊어 보이는 디자인 특성을 고려하여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여가복을 개발하였다.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늬선호 조사에서 선호되어진 도트, 체크, 꽃무늬를 바탕으로 경증치매 노인을 위한 여가복의 원단을 선정하였다. 가장 선호하였다. 또한 치매환자복의 전반적인 디자인 선호도는 응답자의 94%이상이 상하분리형을 선호되어진 선행연구를 참고로 상하분리형으로 디자인 하였다.[18] 디자인에 있어 프릴 레이스나 토글단추 등을 이용하여 여성미를 강조하였고, 멋스러움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미적인 부분이 강조된 의복착용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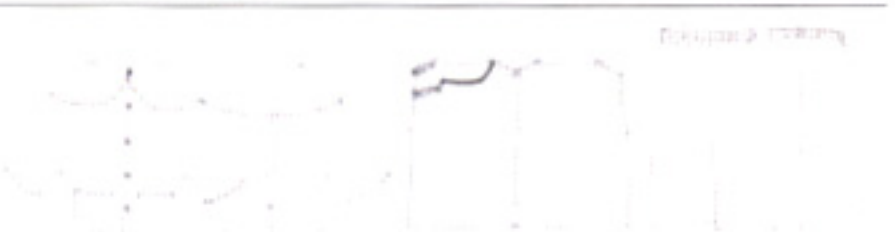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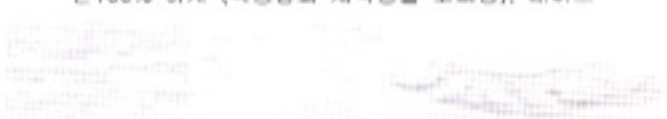
<표 3> 기능적 디자인

	기능적 디자인
착탈의 편리성	· 래글런소매로 착탈의 편리성 강조 (진동둘레의 여유량을 줌) · 셔츠의 어깨부분에 밸크로를 부착하여 착탈의 편리성 강조 · 바지의 허리부분은 주로 느슨한 고무 밴드를 이용(스냅을 이용한 조절)
보온성	· 허리 뒷부분을 앞부분보다 길게 하여 허리와 엉덩이의 보온성 강조 · 상의의 칼라를 넓게 하여 어깨, 등 부분의 보온성 강조 · 바지 · 소매 끝단에 니트 시보리를 부착하여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가능케 하며 보온성을 강조 · 보온을 위해 바지위에 덧입을 수 있는 랩 스커트 제안
안전성	· 소매와 바지 길이를 9부로 하여 걸려넘어짐을 최소화(활동성 강조) · 상의의 등 부분에 맞주름을 넣어 활동성 강조 · 안전성을 위한 반사띠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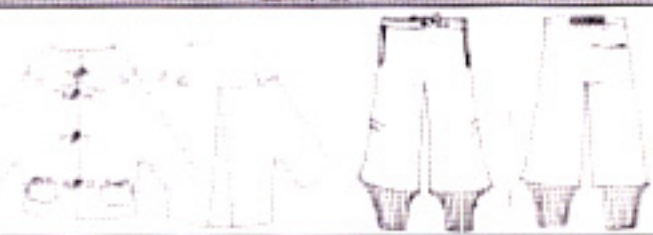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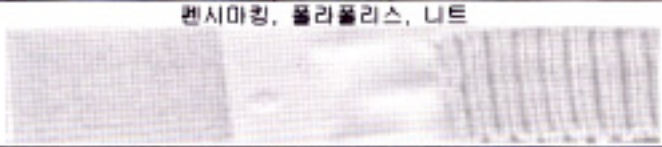
2) 기능성

기능적인 부분으로는 일반 의복에 비해 입고 벗기 쉬우며 활동의 안전성을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체온은 성인에 비하여 낮은 저체온 경향을 보이고, 노화현상에 따른 체온조절기능도 저하되지만, 피부의 온도 감수성이 감소하여 온도에 덜 민감하게 반응[19]하고, 근육의 양이 얼마 되지 않고 신체적으로 노화가 많이 진행되었기에 체력적으로 약하고 추위에 민감함으로 의복소재 선정에 있어 보온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여가복의 기능적 디자인의 특징은 다음 <표 3>과 같다. 이러한 치매노인을 위한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인해 치매노인의 활동에 편리함과 안전성을 주고, 의복입기의 참여로 자심감과 독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여가복 디자인의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경증치매노인 여가복 디자인 특성

디자인특성		도 식 화		
①	형태			
	색채	화이트, 퍼플, 골무늬	장식	리본, 프릴
	소재	면100% 아사(착용감과 세탁성을 고려함), 레이스		
②	형태 장식			
	색채	화이트, 핑크, 골무늬	장식	파이핑, 프릴
	소재	면100% 아사 (착용감과 세탁성을 고려함), 레이스 		

<표 4> 계속

디자인특성		도 식 화		
③	형태 장식			
	색채	아이보리, 인디언 핑크	장식	토글단추
	소재	인조모피, 면혼방 누빔, 니트(보온성을 강조) 		
④	형태 장식			
	색채	핑크, 인디언 핑크	장식	프릴, 술
	소재	펜시마킹, 폴라폴리스, 니트 		
⑤	형태			
	색채	블루, 네이비	장식	반사띠
	소재	폴라폴리스 , 면혼방누빔, 반사띠 		
⑥	형태	⑤번 디자인과 동일		
	색채	스카이 블루, 화이트		
	소재	면 100% 융, 반사띠 		

3. 제작 및 평가

디자인 기획에 따라 총 6벌의 경증 치매노인복을 제작하였다<표 6>.제작된 경증치매노인복의 디자인 평가를 위한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의류학 교수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11명의 전문가 평가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평가 항목은 심미성, 기능성에 대한 내용으로 각 항목에 대한 디자인의 적합성을 평가 하도록하였다. 제작된 경증치매 노인복 총 6벌에 대하여 8~10문항에 대한 자료 분석을 위하여 통계패키지 SPSS Ver 12.0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심미성에서는 색상, 직물무늬, 디테일의 크기, 형태, 배치를 평가하였고, 기능성에서는 소재의 적합성, 소매통 및 소매길이 바지형태 및 길이, 착·탈의 편리성, 안전성, 전체적인 형태 등을 평가하였다.

경증 치매 노인복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 봄/여름 여성용 디자인 ①은 소재 적합성(4.8)이 가장 높았고, 전체적인 형태(3.5)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봄/여름용 디자인 ②는 소재의 적합성(4.6)과 디테일 배치(4.3)가 높은 호응도로 분석되었고, 칼라의 크기와 형태(3.8)는 보통이상으로 분석되었다. 가을/겨울 여성용 디자인 ③은 착탈의 편리성(4.2)이 높았고, 칼라 크기 및 형태(3.6)는 보통이상으로 평가되었다. 겨울 여성용 디자인 ④는 소재의 적합성(4.5)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봄/여름 남성용 디자인⑤는 직물무늬(4.4)로 가장 높았고, 착탈의 편리성(3.5)순으로 평가되었다. 가을/겨울 남성용 디자인 ⑥은 색상(4.6)으로 가장 높았고, 착탈의 편리성(3.5)순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경증 치매 노인복은 전체적인 형태나 소재, 색상, 디테일과 배치는 높이 평가되었으며 칼라의 크기와 형태에서는 보통이상의 평가가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는 여성용 경증치매 노인복의 경우 심미성과 보온성을 위해 기존의 칼라 크기보다 넓은 사이즈로 어깨부분을 덮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진 칼라 크기와 형태는 너무 넓어 다소 무거워보인다는 의견이 있었고, 겨울 여성용 상의소재가 인조 모피 소재로 노인들이 착용하기에 다소 부피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남성용 경증 치매 노인복은 직물무늬, 색상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남성노인복의 상의의 뒷 여밈은 노인들이 스스로 착탈의하기에 오히려 불편함이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사띠의 배치는 안전성을 위해는 좋으나 직선적이여 딱딱한 느낌을 준다는 기타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개발된 경증치매노인의 여가복은 대체로 만족한 결과치가 나왔으나 어깨 부분의 보온을 위해 크게 디자인한 칼라의 크기는 다소 줄이거나 칼라 부분이 아닌 상의 어깨부분에 소재의 다양화나 형태에 따른 디자인의 차별화가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5> 경증 치매 노인복 디자인 평가

문항 \ 디자인		형태					
		여성용①	여성용②	여성용③	여성용④	남성용⑤	남성용⑥
		봄/여름용		가을/겨울용	겨울용	봄/여름용	가을/겨울용
심미성	색상	4.0	4.0	3.5	4.3	4.2	4.6
	직물무늬	4.0	4.1	3.6	4.0	4.4	4.4
	디테일배치	4.0	4.3	4.0	4.1		4.0
	칼라크기 및 형태	·	3.8	3.6	4.0	·	·
	랩 스커트의 형태	·	·	4.1	·	·	·
기능성	소재 적합성	4.8	4.6	4.0	4.5	4.3	4.7
	소매통 및 소매길이	3.9	4.0	4.0	4.0	4.0	4.2
	바지형태 및 길이	4.0	4.0	4.1	4.2	4.0	4.0
	착탈의 편리성	4.0	4.0	4.2	4.2	3.5	3.5
	안전성(반사띠)	·	·	·	·	4.3	4.4
	전체적인형태	3.5	4.0	4.0	4.3	4.3	4.3

<표 6> 경증 치매노인복

IV. 결 론

경증치매노인은 다양한 정서적 치료나 치매관련 프로그램의 활용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증세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임상적 분류에 따라 환자의 증상에 따른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복에 있어서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증치매 노인을 위해 착탈의 편리와 부분적 보온과 소재의 편리함과 같은 기능적 요소와 색채, 장식 디테일, 무늬 등을 고려한 심미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 여가복을 개발하였다. 이는 경증치매노인의 감성적, 심리적인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색상 및 무늬의 선택으로 기능성을 부가하였다는 점에서 의복디자인에 의한 의상치료(fashion therapy)의 개념에 기초를 두었다. 인지능력이 존재하는 경증치매노인에게 중증치매노인 환자복이나 일반 건강한 노인복과 다른 차별화된 의복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자기존중 향상과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켜 치료 및 사회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경증 치매노인의 여가복디자인 개발은 국내 치매환자복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디자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하고, 선호하는 무늬와 색채를 근거로 디자인하였다. 또한 실버세대의 감성적인, 심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치매환자라는 이미지를 드러내지 않으며, 실제 연령보다 젊어 보이는 색상이나 디자인을 고려하여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여가복을 개발하였다. 디자인 기획에서는 성별에 남성용 2벌, 여성용 4벌로 디자인 및 제작하였고,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하여 심미성과 기능성에 대한 내용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평가 결과, 개발된 경증치매 노인복은 대체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가 나왔으며, 칼라의 크기와 같은 일부 항목에서는 보통이상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 까지 제2의 피부로 함께하는 의복이 가지는 심리적 작용의 측면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사회 환경적 치료요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상적 분류에 따른 세부적인 접근을 통해 이제까지 환자복 중심의 관리적, 기능적 중심에서 벗어나 치매환자의 정서와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인지기능의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 경증치매환자에게 착의실험은 할 수 없었으며 대신 이들을 돌보는 간병인이나 의사, 간호사들의 의견만을 기획단계에서 수렴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이제 치매에 대한 문제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서 관심과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의류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더욱 세분화되어 라이프스타일별, 용도별, 사회적 보호차원의 상징개발 등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2007.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보건산업백서' 고령친화산업 환경과 활성화 방안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2006~2010(2006), 보건복지부
3) 지혜련, 최순희, 조명숙(2003). " 치매간호중재 프로그램이 경증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 우울 및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노인간호학회지*. 5권 2호. pp.205-217
4) 류은정, 박혜원, 배현숙, 권재철(2006). " 치매환자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 *한국의류학회*. 30 권 8호. pp.1253-1262
5) 신현영, 이인자(2000). "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의상치료 효과(제1보) ". *한국의류학회*. 24권 7호. pp.1089-1090
6) 박태준(2003). "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지혜련(2003). "*치매간호중재 프로그램이 경증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박혜원, 류은정, 배현숙(2006). "국내 치매환자복 디자인 현황조사 분석". *한국복식학회*. 56권 6호. pp.45-57
9) 한경희 외 9인(2002). *노인성 치매*. 교문사. pp.16-18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매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1996
11) 박태준(2003). 앞글
12) 김옥희(1998), "치매노인부양가족의 문제와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전망", *노인복지연구* 8권, pp.181-210
13) 류은정, 박혜원, 배현숙(2006). "치매 환자복의 착의실태". *대한가정학회지*. 44(4). pp.123-131
14) 류은정, 박혜원, 배현숙, 권재철(2006). "치매환자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30(8), pp.1253-1262
15) 류은정, 박혜원(2006). "치매환자복의 실태와 문제점 및 디자인 선호도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 8(6). pp. 618-626
16) 박혜원, 류은정, 배현숙(2006). "국내 치매환자복 디자인 현황조사 분석". *한국복식학회*. 56 (6). pp.45-57
17) 박혜원, 류은정, 배현숙(2006). 앞 글. p.47
18) 박인조(2006). *치매환자복 디자인 개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 류은정, 박혜원, 배현숙, 권재철(2006), 앞 글

(2007년 5월 7일 접수, 2007년 6월 28일 채택)